

대행 스님

한 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서두에 쪼금 얘길 하고선 하렵니다. 처음에 이 얘길 듣지 않고는 지금 설법하려고 하는 말의 뜻을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요. 선법이라는 것은 내가 쫓아다니면서 설법하는 게 아닙니다. 선 강의라는 것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시에 같이 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더불어 진실한 마음이라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인공' 이랬다고 해서 없는 것이 주인공이 아니고 고정된 관념도 없을 뿐 아니라 행도 없고, 고정된 들음도 없고 봄도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모두가 공식하면서 공생하면서 공용을 하고 공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그쪽에 이익이 가는 반면에 그쪽에서 나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것이 공통된 우리 사회의 모든 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생활 빼놓고 불법은 없습니다. 내가 있고 나서 모든 게 있는 것이지, 내가 없고 종교라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기복으로 나가는 이런 것을 몰락, 아예 용광로에 넣듯이 없애 버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생동력 있는 현실의 삶을 그대로 여여하게, 도도하게, 정당하게 자유인으로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투는 그 주인공의 뜻은 하나하나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찰나찰나 바로 화하면서 나투면서, 즉 말하자면 진화되면서 옮겨 갈 뿐입니다.

24시간 살아가면서 한번 음미해 보실 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찰나찰나 옮겨 가면서 고정된 행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고정된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말 할 때에 내가 말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공이라는 얘깁니다. "색이자 공이고, 공이자 즉 색이다." 하신 부처님 말씀이나 똑같은 얘깁니다.

또 요거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대 오온이 다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것도 지수화풍으로 인하여 한데 합쳐진 그 자체의 성이 커진 거고, 그 성이 커진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분류돼서 항성이다, 행성이다 하는 여러 가지 별들이 많고 인간들도 또 하나의 혹성으로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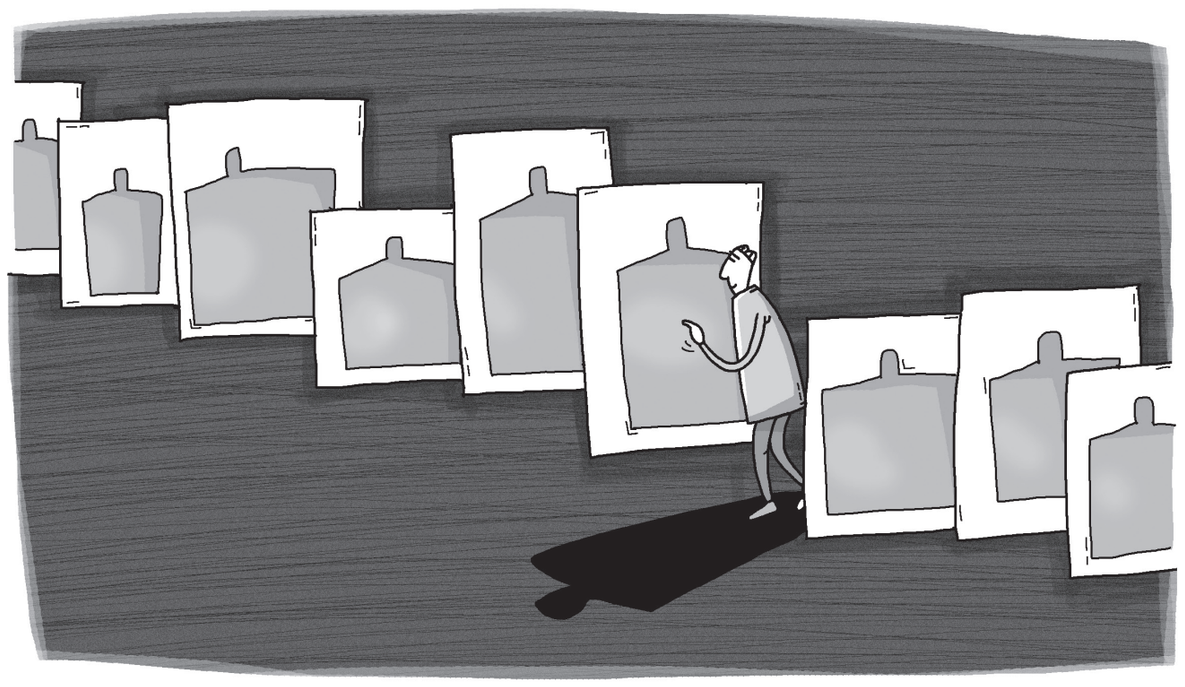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찰나찰나 나투어 돌아가는 이 원리를 볼 때에 이렇게 나투어서 돌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는 모습을 바꿔서 옮겨 갈 뿐이지 죽는 것도 아니요,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윤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윤회를 하되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자유성 있게, 내가 윤회를 하되 남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이쪽으로 발을 디뎌 놓으려면 이쪽으로 발을 디뎌 놓고 이러는 것입니다. 화가가 이런 걸 그리려도 그리고 저런 걸 그리려도 그리고 자유껏 그리는 거지, 누가 이런 걸 그리라고 해서 그리는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비유할 때. 그래서 오늘은 요러한 서두를 얘기해 놓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관의 다섯 가지의 문제, 시쳇말로 망원경이라든가, 천체망원경이라든가 무전기라든가, 책정기 또는 탐지기, 컴퓨터 또는 영사기, 이런 것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연법칙에 의해서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다 쓰질 못해요. 쓰지 못하는 반면에 3차원이다 2차원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중생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주어져 있는 걸 다 부릴 줄만 안다면 4차원보다도 7차원으로 우리는 등장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오관을 통해서 돼 있기 때문에 원자력, 전자력, 즉 말하자면 통신력 이런 것을 수없이 내가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코드를 뺐다 끼웠다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그 근본을, 자기가 자유스러운 열쇠를 가졌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나가면서 비가 온다 또는 물이 많이 생긴다, 폭풍이 일어난다, 또는 화산이 일어난다, 또는 홍수가 난다 이런 문제, 또는 허공에서 비가 오고 그럴 때, 또 뭐라 그럴까요, 그걸? 무지개가 선다, 또는 번개가 친다 이런 문제 등등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잘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람 사는 데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주와 더불어 이 모든 천체, 삼천대천세계의 우주의 근본이 바로 우리 한 점, 마음의 근본으로 전체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난 거, 이 생명이 이루어진 것도 흙과 물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의 원료가 바로 물, 흙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원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원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됐으며 지금 발전이 됐으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모두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 모든 무지개가 선다, 번개가 친다, 비가 온다 하는 것이 정맥 동맥이 오르고 내리듯이 그렇게 하면서 순조롭게 순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순환을 하는데, 우주와 더불어 우리 이 지구의 혹성, 이 삶에 대한 모든 에너지, 그 원료가 바로 순환이 되는 데서 원료를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서 원료가 나갈 수도 있지마는 우리에게 원료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원료가 많은 데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원료가 있으니까 되고, 원료가 없는, 즉 말하자면 원료를 다 쓰고 만약에 맹물이 원료가 많은 데로 들어간다면 그건 정화가 돼서 영양소가 돼 버리고 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옮겨 가면서 변화해서 에너지를 스스로서, 자연법칙으로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 우리가 그렇게 그 뜻을 알며, 그 도리를 알며, 그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모든 게 한마음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증명해서 내 자신이 알 수 있을까? 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나 절대로 모를 겁니다.

우리에게 원자력과, 즉 공한 진화력, 이 원자력이 튼튼함으로써 진화력도, 또 전자력도 또는 통신력도 또는 망원경도 책정기도 또는 영사기도 모두가 스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컴퓨터, 그것을 불교에서 말하면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또 탐지기, 이것을 타심통이라고 합니다, 불가에서 말할 때. 그러면 이것이 포함돼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활용해서 내가 쓸 수 있어야만 원료를 얻어 올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저 우주에서도 더불어 같이, 그것이 옷을 벗으면 새것이 나오고 새것이 나오면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옮겨서 옷을 벗고 옮길 뿐이지, 그게 없어지고 죽어 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가 하면 모든 별성들도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료를 얻어 오려도 이런 도리를 알아야 어떠한 한생각에 원료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